

## 탈북자 가족 구성원의 가족관계 인식에 관한 조사연구\*

탈북자 가구주 및 그 배우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이기영·성향숙\*\*

본 연구의 목적은 가족단위로 입국하여 남한에 살고있는 탈북자 가족의 남한사회 적응경험을 가족관계라는 일차적 집단의 범위 안에서 고찰하고 이들의 가족관계적 특징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가족관계의 다양한 측면들, 즉 가족사이의 결속력과 의사소통상태, 가족원간 권력관계, 그리고 가족원들 사이의 갈등 및 폭력에 대하여 응답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입국 전(북한에서의 생활과 제3국 체류경험을 포함하는 기간)과 입국 후(조사시점 현재, 2000년 8~10월) 비교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또한 남한거주기간에 따라 가족관계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43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탈북자 대상 가족관계조사 척도를 발전시켜 대략 1994년 이후부터 1999년 12월까지 입국한 탈북자 가족원(가구주 및 배우자) 6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예상과는 달리 조사시점 현재의 탈북자 가족의 가족관계는 그리 부정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입국전의 가족관계에 대한 인식보다도 대체로 긍정적인 측면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부부관계에 비하여 부모-

\* 이 논문은 1999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KRF-99-003-C00455).

\*\* 이기영 :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성향숙 : 경성대학교 강사.

---

자녀 사이의 관계는 긍정적이지 못했으며 잠재적 가족갈등의 요소로 지적되었고, 더욱 중요한 것은 탈북자 가족의 긍정적인 인식이 남한 거주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일정한 변이를 보이고 있는 바, 가족 구성원간의 권력 측면에서는 남한거주기간이 길수록 부(負)적 선형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가족 결속력 측면에서는 남한 정착 2년 반 정도를 기점으로 긍정적 인식이 점차 감소하는 2차 함수적 관계, 또한 거주기간이 5~6년 연장됨으로써 다시금 증가하는 3차 함수적 관계가 보인다. 탈북자 가족의 이와 같은 가족관계의 부적변화와 유동은 정착초기 가족관계 훈련 및 상담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다.

## 1. 서론

1994년 이후 탈북자의 남한 입국자 수가 과거에 비해 현저히 증가하여 2001년 3월 현재까지 약 1,500여명에 이르고 있고 지난 한 해 동안 300명이 넘는 탈북자가 입국, 정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남한에 입국하여 정착을 시도하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들은 사회적응 및 정착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탈북자들은 안정적 취업의 성취와 같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적응이 결코 쉽지 않으며, 남한의 지역사회 속에서 더 이상 '탈북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남한주민'으로 자연스럽게 동화되는 사회적 측면에서의 적응 또한 순조롭지 못하다.

지금까지의 탈북자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이러한 탈북자 개개인의 적응과 정착생활 과정에 초점을 두고 이들의 부적응 현상을 분석하여 그 부적응에 대응하는 정부 및 민간의 지원책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최근 탈북 입국자 가운데 가족단위 입국자가 현저히 증가하고 또한 남한에서 탈북 가족원들이 재결합되는 상황이 늘어남으로써 가족단위의 남한 사회에의 적응 행태와 과정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단독입국 탈북자에 비해 가족이라는 1차적인 집단으로서 적응해 가는 이들은 가족원간의 경제적·정서적 지지로 인한 적응에의 긍정성이 보이리라 예상되기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적응의 스트레스로 인한 가족원간의 마찰과 갈등이 존재하여 오히려 정착과정에 더 큰 어려움이 있다는 예상도 가능하게 한다(이기영, 2000). 실제로 탈북자 가족을 방문하는 자원봉사자들의 기록에 의하면 탈북자 가족 내에 부

---

부갈등과 폭력, 이혼, 부모와 자녀사이의 의견대립과 자녀의 반항 등이 적지 않게 목격되고 있어<sup>1)</sup> 앞으로 가족단위의 탈북자 문제에 관한 실증적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연구의 주제로 탈북자 가족의 적응과정과 이들의 가족관계 현상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파악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아직 탈북자 가족의 가족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한 실증분석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최근의 탈북자 가족에 관한 연구(이기영, 2000; 김엘리, 1999)들은 단편적 실증자료와 문헌연구의 지엽적 정보들을 조합하여 그 가족관계를 묘사하고 있는 데 그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이 연구는 1994년 이후부터 1999년까지 입국하여 현재 남한에 살고 있는 탈북자 가족을 대상으로 이들의 가족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가족관계의 다양한 측면들, 즉 가족원 사이의 결속력과 의사소통상태, 역할수행의 분담 및 권력관계, 그리고 가족원들 사이의 갈등 및 폭력에 대하여 탈북자 가족의 인식을 실증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가족관계의 5가지 하위개념을 구성하는 변수군에서 남한에 입국하기 전과 입국한 후 조사시점 현재의 가족관계 평가에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고, 이러한 입국 전후 시점에 대한 인식차이가 남녀 집단별로 차이가 있는지, 또한 탈북자 가족의 남한 거주기간에 따른 가족관계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조사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로서 탈북자 가족의 남한 사회 적응과정에서 나타나는 긍정적, 부정적 가족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토의하고 이에 대한 사회복지적 실천함의를 제공하여 탈북자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가족단위를 대상으로 한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탈북자 가족관계에 관한 이론적·경험적 배경

### 1) 탈북자 가족의 입국 경향

1990년 이전에는 남북의 휴전선을 넘어서 귀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으므로 가족단위의 탈북자가 입국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그러나 90년대 중반 이후 중국

---

1) '북한인권시민연합'의 탈북자돕기 대학생자원봉사단의 탈북자가정방문학습지도 활동기록내용을 참조하였음.

과 러시아 등을 경유하는 탈북이 급증하면서 점차 가족단위의 탈북 경향도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가족과 같은 집단 월경(越境)이 쉽사리 성공할 만큼 북한 국경이 급작스레 허술해졌다기보다는 선발 탈북 가족원들의 중국 내 체류가 점차 장기화됨으로써 북한 내 잔류 가족원들의 탈북이 추가적으로 이어져 중국 내에서 가족이 합류하는 경향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추정한다(윤여상, 1999).

재외국(在外國)하고 있던 탈북자 가족은 같은 시점에 남한에 입국하는 경우도 있고,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탈북 시기와 남한 입국시기를 달리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아버지와 딸은 먼저 입국하고 어머니와 아들은 나중에 입국하여 남한에서 함께 합류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최근 들어 이러한 남한 내에서의 원가족 최종결합의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1999년 12월 31일 현재 통일부에서 제시한 1994년 이후 가족 동반 입국자<sup>2)</sup> 리스트를 분류해 본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의 통계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94년 이후 '99년까지 입국한 탈북자 가족은 부부가족이 13가족,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은 27가족, 편부모 가족이 33가족, 기타 형태의 가족이 8가족 등으로 총 81가족 234명이다. 가족단위 입국의 증가추세는 '94년 3가족(10명), '95년 4가족(13명), '96년 9가족(27명), '97년 17가족(59명), '98년 12가족(34명), '99년 36가족(91명)으로, 6년 동안 가족 수로나 가족성

<표 1> 1994년에서 1999년 12월 말까지 입국한 탈북자에 대한 가족관계정보

가족유형	가족단위로 입국한 숫자 (1994. 1. 1 ~ 1999. 12. 31)	단신입국 후 결혼한 가족 수 (1994. 1. 1. ~ 1999. 7. 6)
부부가족	13가족	34가족
부부 + 자녀가족	27가족	
편부모가족	33가족	
기타(형제자매 가족 등)	8가족	
계	81가족	34가족
비고	입국 후 이혼한 2사례 포함	* 결혼 이후 가족구성에 대한 자료 부족 * 탈북자간 결혼 사례 포함

2) 1994년 이전의 가족단위 탈북입국은 1987년 귀순한 김만철 씨 가족 11명이 유일한 사례이다.

---

원의 숫자로나 약 10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세라면 지난 2000년 한해동안 약 50~60가족(약 150~200명 정도)이 입국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한편, 독신으로 입국하여 남한에서 배우자를 만나 결혼한 탈북자는 '94년부터 '99년 7월까지 약 34명이 된다.

## 2) 탈북자 가족에 대한 선행연구

지금까지 적지 않은 탈북자 연구들이 진행되었지만 대부분 탈북자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적응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다루거나(이종훈, 1996; 이정우·김형수, 1996; 박종철·김영운·이우영, 1996; 윤덕룡·강태규, 1996; 이기영, 1998; 김동배·이기영, 1999) 개개인의 심리적 상태와 정신건강문제 등을 다루었기(민성길·전우택, 1995; 전우택, 1995; 이장호, 1997) 때문에 탈북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경험적인 연구는 별로 없었다. 최근에 와서 탈북자 가족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두 개의 실증연구가 이루어졌다. 하나는 탈북자 가족 7사례를 분석한 박미석·이종남(1999)의 연구와 38가구의 탈북자 가족을 대상으로 양적·질적 분석을 병행한 한국여성개발원(장혜경·김영란, 2001)의 조사연구가 그것들<sup>3)</sup>이다.

박미석·이종남(1999)의 연구는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자립적 생활을 경험한 일곱 가족(남한에서 결합한 가족포함)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조사의 질적연구 방법을 실시하여, 탈북자 가족 구성원간에 부부사이나 부모-자녀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문화적 괴리감, 공감대 부재, 경직된 의사소통 등이 심각한 스트레스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한편 탈북자 가족은 가족외부의 공식적·비공식적 지원체계와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도 이들 지원체계의 위압적 태도, 과도한 신변보호상의 역효과(이상 국정원, 신변보호 형사 등), 종교적 교리나 조직체계의 압박감(이상 종교단체 등), 편견과 고정관념(이상 이웃, 남한 친구 등) 등으로 인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한다.

한국여성개발원의 조사(장혜경·김영란, 2001: 96)는 탈북자 가족<sup>4)</sup>이 남한에서 생

---

3) 이 연구들은 본 연구조사와 거의 동시에 진행되었다.

4) 가족단위입국과 단독입국 후 결혼하여 이룬 가족들을 모두 포함하였음.

---

활하면서 부부생활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는데 부부간 의사소통이나 의견차이, 역할갈등(열등감, 위축감, 불만정도 등), 부부간 애정문제, 부부간 말다툼, 언어적·신체적 폭력문제, 배우자의 술버릇 등이 있었지만 심각하게 느끼는 경향이 아니었으며 더군다나 이러한 이유들이 가족 갈등이나 해체로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가부장제가 강화되어온 북한의 가족관계 특성에 기반한 탈북자 가족의 부부역할 체계가 남한사회에 생활하면서 변화하지 않을 수 없다고 예측한다. 그 실증적 예로서, 탈북자 가족 내의 가장권이 변화되어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또 성 역할 고정성의 변화로 남성의 가사노동참여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위의 두 가지 실증적 연구 외에 탈북자 가족상황에 대해 수집할 수 있었던 대부분의 정보는 탈북자를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와 자원봉사자들의 사례 기록, 탈북자 보호 경찰관들의 비공식적 증언, 그리고 탈북자 실증연구(박종철·김영윤·이우영, 1996; 김엘리, 1999)나 탈북자 관련 문헌연구들(이기영, 2000)에서 부분적으로 제시된 가족관계에 관한 단편적인 설명이 전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박미석·이종남의 연구는 질적연구 방법으로서 심층면접을 통한 자료수집을 함으로써 소수의 사례를 깊이 있게 분석하였다고는 볼 수 있으나, 양적조사가 줄 수 있는 가족의 전반적 변화양태를 간과하고 있으며, 장혜경·김영란의 연구는 전체로서의 가족이라는 관점보다는 가족 내 여성의 역할에 무게를 두었다고 하겠다.

탈북자 가족에 대한 비공식적 자료로서 민간단체와 자원봉사자들의 가정방문 보고서<sup>5)</sup>에 의하면 실제로 가족단위 입국자들이 증가하면서 청소년들과 장년들의 사회적응 속도의 차이로 인한 세대갈등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지위와 역할변화로 인한 부부갈등 등 가족갈등이 발생함으로써 아내에 대한 자신감의 상실과 폭력 사례, 남편의 외도로 인한 이혼사례, 부모-자녀간의 갈등 사례 등 가족의 불안정성이 보고되기도 한다.

남한에 정착하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김엘리, 1999)는 탈북자 가족의 생활을 제한적이나마 설명하고 있는데 ‘안정된 직장이 없고 취직이 잘 안 되는 남편의 입지로 인한 경제적인 갈등’을 경험한 탈북자 여성이 전체 조사대

---

5) 북한인권시민연합 탈북자돕기 대학생자원봉사단 방문보고서 내용들에서 발췌함.

---

상자 17명중 8명이었고 이는 남편과의 성격차이 또는 건강문제로 인한 남편과의 갈등경험보다 훨씬 더 많은 빈도 수를 차지하는 것이었다.

1996년의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실태조사(박종철·김영운·이우영, 1996)는 탈북자들이 남한 생활을 하면서 겪는 대표적인 사회생활 적응의 문제로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지적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북한에서는 가부장적 성향이 강하여 남성우위의 가정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남한의 경우 상대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높아서”(1996: 87) 부부관계에 갈등의 소지가 많다는 것이다.

### 3) 난민 및 이주자 가족의 사회적응과 가족갈등

탈북자와 비견될 수 있는 집단으로 난민과 이민자 혹은 이주민<sup>6)</sup>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이러한 이른바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 이주자들(*voluntary or involuntary migrants*)에 관한 연구는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고 본다. 그러나 이들의 사회적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별적 심리문제와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지금까지 많이 진행되어 왔지만(Bauer and Priebe, 1994; Bernier, 1992; Hirayama, Hirayama, and Cetingok, 1993; Strober, 1994; Bauer and Stefan, 1994) 가족적 차원에서의 문제 혹은 갈등을 다룬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이주자 가족의 적응 행태는 대개 난민이나 이민자 개인의 사회적응 과정과 관련지어 설명되거나(Kelly, 1992; Kelly, 1994; Jacob, 1994), 난민가족의 여성에 대한 연구(Lovell, Tran, and Nguyen, 1987; Tran and Nguyen, 1994), 혹은 청소년이나 아동에 관한 연구(Nguyen, 1982; Lee, 1988; Almqvist and Brandell-Forsberg, 1995; Ajdukovic, 1993) 등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분석 혹은 묘사되곤 했다.

난민가족이 새로운 정착지에서 경험하는 급격한 전환의 결과는 사회복지 분야의 학자와 실무자들에게 주요한 과제로 다루어져 왔는데 이들의 공통적인 결론은 난민 이주자(*refugee immigrants*) 가족은 정착지의 일반가족에 비하여 더 많은 가족갈등의 문제와 정신건강에서의 취약함을 나타낸다는 것이었다. 한 예로 1970년대와 '80년대 동안 미국에 이주한 많은 수의 동남아시아 난민의 경우 미국의 일반가족에 비하여 더

---

6) 통일과정에서의 동독주민들이 서독으로 이주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보인다.

---

많은 심리·정서적인 문제를 보이고 있으며(Westermeyer, 1986), 가정폭력과 같은 부부갈등 및 가족갈등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Ben-Porath, 1987; Butcher, Egli, Shiota, and Ben-Porath, 1988). 뿐만 아니라 난민가족의 자녀들 또한 그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영향을 미칠 육체적, 심리적 문제를 일반아동들보다 더 많이 가지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Ben-Porath, 1987; Charron and Ness, 1981).

캐나다에 정착하는 살바도르 난민의 사회·문화적 적응과 통합을 연구한 제이콥(Jacob, 1994)의 논문에서는 난민의 사회·문화적 통합에 있어서 이주 이전의 경험(*premigration experiences*)과 이후의 경험(*postmigration experiences*)이 각각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 특히 난민 수용국의 통합정책, 가족생활의 상황, 사회적 관계형성의 정도, 향후계획의 유무 등이 이주 후 적인 요소로서 성공적인 정착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밝히고 있다.

이주 후 전환기적 시기에 있는 난민여성의 심리문제에 관한 연구(Lovell, Tran, and Nguyen, 1987)에서도 난민 가족관계의 변화가 논의되고 있다. 새로운 정착지에서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가사수행과 소득자로서의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을 직면하는데 그 이유는 이주과정에서 남편이나 가족 내의 주요 소득자였던 남자들이 사망, 분리되거나, 남편이 존재하여도 제대로 노동시장에 진출하여 소득을 창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이다.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가족 내의 남성(주로 가장인 남자)에게 심한 압박감이 증대하게 되고 이 때문에 남성들은 새로운 정착국에서의 사회영역에서 자신들의 존재가치가 하락하는 것으로 느끼게 되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가족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으로 인식한다. 또한 여성의 가족경제 공헌정도가 크면 클수록 가족 내의 권력이 커지게 되는데, 이때 남편이 그의 기존의 권위를 아내와 같이 공유하기를 바라지 않고 아내에 의해 이루어지는 가족관계의 변화를 지지하지 않는다면 그 가족에서는 가족관계적 위기가 초래되고 부부갈등, 심지어 가정폭력까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 이주와 관련된 청소년들의 행태를 연구한 골드버그(Goldberg, 1980)는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이주라는 경험은 가족관계의 변화를 통하여 그들의 자긍심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즉, 이론적으로 가족 구성원 중에서 자녀가 대개 정착지의 주류 문화에 빠르고 많이 노출됨으로써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도가 부모를 능가하게 될 때 가족관계는 긴장된다. 이러한 상황은 자녀로



---

하여금 그들의 부모를 돌보는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 궁극적으로 청소년들의 자아형성에 부정적이고 또한 존경을 받기 원하는 부모의 권위에 대단히 치명적인 역할 전도 현상을 초래한다.

#### 4) 연구 개념들의 정의

가족관계란 가족간의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권력구조, 역할구조 등과 같은 사회적 관계와 개인간의 심리적 정서적 관계를 포괄하는 것으로 가족행동의 총체이며, 가족 상호작용의 역동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유영주 외, 2001: 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권력, 역할수행, 가족갈등 및 폭력이라는 사회적 관계와 개인적·심리적 역할 수행으로서의 가족 친밀감의 표현인 가족 결속력과 가족 상호작용의 표현수단으로서의 의사소통을 가족관계의 하위개념으로 설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인간관계에서 친밀한 관계란 지적, 정서적, 신체적으로 몰입된 사랑과 상호헌신을 말하는데 가족관계에서의 이러한 친밀도는 가족 결속력의 척도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족은 친밀하다', '우리가족은 서로를 잘 도와준다' 등 6개 문항을 구성하였다. 역할수행이란 가족이 개인의 가족 내 지위에 따라 적합한 행동을 할 것을 요구하는 행동유형을 말하는데, 가족원간의 역할수행을 측정하기 위하여 '나는 나의 배우자가 나에게 어떤 역할을 기대하는지 잘 알고 있다' 등 9개 문항을 구성하였다. 가족원간의 의사소통이란 의사를 전달하고자 하는 가족원이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어떠한 매체를 통하여 전달하여 상대 가족원으로부터 반응을 발생하게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의사소통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나의 배우자는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 귀 기울여 주는 편이다' 등 9개 문항을 구성하였다. 가족권력이란 가족 내의 구성원들간의 관계를 지배·복종의 관계로 나타내는 개념으로서 '우리가족의 일은 주로 남편이 결정을 한다', '나는 아내를 나와 동등하게 대해준다' 등 8개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가족갈등이란 가족원들간의 욕구의 해결에 곤란을 느끼는 상태 혹은 욕구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상태를 가족갈등이라고 한다. 문항은 '나의 배우자는 나에게 불만이 많다', '우리는 자주 부부 싸움을 한다' 등 11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5가지 하위개념들로 구성된 총 43문항은 가족관계에 관한 기존의 scale, 즉 Olsen

---

Protner & Lavee의 FACESIII(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III), Roach, A. J., Frizer, L. P. & Bowden의 MASS(Marital Satisfaction Scale), David H., Olsen, David G. Fournier, Joahn M. Duckmen의 ENRICH (Enriching and Nurturing Relationship Issues, Communication and happiness), Murry A. Strus의 CT(Conflict Tactics Scales), 김혜숙의 BAFRI-K(The Beliefs about Family Relationship Inventory)에서 발췌하였다. 특히 가족관계 측정을 위하여 가족 결속력, 역할수행, 의사소통, 폭력 및 갈등, 가족권력 등의 하위개념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어느 한 스케일에서 집중적으로 원용하지 않고, 여러 유형의 가족, 부부, 부모-자녀관계 관련 스케일에서 필요한 것을 발췌하였다. 또한 탈북자에게 적용될 수 없는 것은 제외하였고, 일부 문항들은 탈북자에게 맞게끔 변용하였다.

### 3. 조사 방법론

본 연구는 탈북자 가족원들의 가족관계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조사시점 현재(2000년 8월~10월)의 가족관계를 응답자들의 인식에 근거하여 파악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가족관계에 관한 43개의 문항에 대하여 탈북자 가구의 가구주 및 그 배우자에게 자신의 인식을 '5 = 매우 그렇다'에서 '1 =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의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그러나 43개의 문항 중 일부의 부정적 질문, 예를 들면 가족 결속력 변수군의 '우리 부부는 거리감을 느낀다', '우리 가족은 함께 있을 때조차도 거의 친한 느낌이 들지 않는다', '우리 집 아이들은 부모들을 무시한다' 등은 반대방향으로 코드화하여 '1 = 매우 그렇다', '5 = 전혀 그렇지 않다' 식으로 처리하였다.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어떤 문항이든지 높은 점수로 코드화된 것은 가족관계에 대한 긍정적 인식으로 해석된다.

· 조사대상자 선정은 전수조사에 가까운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1994년 1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가족단위로 입국한 총 81가족 중 통일부 관계기관의 협조로 현주소가 확보된 75 탈북자 가족을 대상으로 해당가구의 가구주 및 그 배우자들을 선정하였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관한 질문 내용 때문에 자녀들도 응답자로 포함시키려 하였지만 설문지 회수율에 대한 우려와 응답의 복잡성 때문에 최종적으로 탈락시켰

---

다. 응답자에게는 각각 남편용, 아내용 설문을 우선하여 응답을 의뢰했다. 설문지 회수결과 44가구의 67명이 응답을 하였다.<sup>7)</sup>

설문지는 총 43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가족관계 척도로 구성하였다. 이 가족관계 척도에 대한 응답자들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으로 파악한 결과, 남한에 오기 전 가족관계 43개 문항에 대한 응답은 .9161의 높은 신뢰도를 보였고, 남한에 온 후의 가족관계 43개 문항에 대한 응답 역시 .9292의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가족관계의 5개 하위개념 변수군들에 대한 신뢰도는 대개 0.7과 0.9사이에서 나타남<sup>8)</sup>으로서 어느 정도 신뢰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하나의 하위개념, 즉 '역할수행' 변수군이 예외적으로 아주 낮은 신뢰도를 보임으로서 (남한에 오기 전에 대한 인식 0.3831, 남한에 온 후가 0.5310) 최종적으로 통계분석에서 제외하였다.

#### 4. 조사의 분석결과

##### 1)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socio-demographic) 정보

###### (1) 연령

조사에 응답한 탈북자 가족의 가구주 혹은 그 배우자(1994년~1999년 사이 입국)의 나이는 평균 47세(n=66)였고, 남성들만의 평균연령은 46.7세(최소 28세, 최고 74세), 여성들만의 평균연령은 47.1세(최소 26세, 최고 72세)였다. 조사대상자 전체의 연령 분포를 10세 단위로 묶었을 때 30세~39세의 연령층과 50세~59세의 연령층이 각각 31.3%와 30.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60세~69세 사이가 16.7%, 40세~49세 사이가 12.1%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

7) 본 연구는 전수조사를 시도하였으나 실제 응답한 가구는 44가구의 67가족 구성원(가구주 및 그 배우자)이었다. 응답자 중에는 부부가 함께 응답한 경우와 일부는 남편(아버지) 혹은 아내(어머니) 한 사람에게 의해 응답한 경우도 있어 양자의 경우를 합하여 구성하였다.

8) 신뢰도 결과를 세부적으로 서술하면 가족결속력 변수군은 남한에 오기 전은 0.7839, 남한에 온 후 0.7890의 Cronbach's alpha 값을 보였다. 가족권력은 남한에 오기 전이 0.7286, 남한에 온 후가 0.7473, 의사소통은 남한에 오기 전이 0.7337, 온 후가 0.7502, 갈등 및 폭력은 남한에 오기 전이 0.8798, 온 후가 0.8873의 Cronbach's alpha 값을 보였다.

(2) 남한 거주기간

조사 응답자들이 남한에서 거주한 기간은 평균 31.3개월, 즉 약 2년 7개월 정도였다. 이들 가족의 거주기간을 1년 단위로 구분할 때 13개월~24개월 사이가 34%로 가장 많고, 37개월~48개월 사이가 31%, 그 다음 25개월~36개월 생활한 응답자는 19%, 나머지가 1년 이하(7.5%), 5년 초과(6%) 순이었다.

(3) 경제수준과 노동시장 경험

응답자 중 현재 직장을 다닌다고 응답한 사람은 29% 정도이고 자영업을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6%밖에 되지 않는다. 이 두 가지를 합하면 약 35% (29.1% + 6%) 이므로 이러한 정보에만 근거하여 산정한다면 응답자들의 실업률은 약 65%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현재 무직이라고 답변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 중 20.9%라는 것을 볼 때, 이 설문으로는 정확한 실업률을 계산하기는 힘들다. 현재 무직이지만 과거에 취업했거나 장사를 한 경험이 있다고 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 중 10.5%였는데 이 중 취업경험이 7.5%, 장사 경험이 3% 정도였다. 한편 남한에 온 후 한번도 취직을 못했다고 답한 경우는 4명 중 1명 꼴로 나타났다. 실질적인 취업 이외의 부수적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탈북자 강연이 22.4%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수입에 관계없이 사회단체(탈북자 동지회 등)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가 약 3.0%이었다.

<표 2> 탈북자 가족 구성원의 연령과 남한 거주기간의 분포(N=67)

연령 (n=65)				남한 거주기간 (n=67)			
연령구간	빈도	백분율	누적백분율	거주 개월수	빈도	백분율	누적백분율
20세~29세	4	6.1	6.1	1년 이하	5	7.5	7.5
30세~39세	21	31.8	37.9	2년 이하	23	34.3	41.8
40세~49세	8	12.1	50.0	3년 이하	13	19.4	61.2
50세~59세	20	30.3	80.3	4년 이하	21	31.3	92.5
60세~69세	11	16.7	97.0	5년 이하	1	1.5	94.0
70세 이상	2	3.0	100.0	5년 이상	4	6.0	100.0
합계	66	100.0		합계	67	100.0	

〈표 3〉 탈북자 가족가구주 및 배우자의 남한입국후 노동시장 경험(단위 : %)

문 항	예	아니오	문 항	예	아니오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다.	29.1	70.9	남한에 온 후 한번도 취직하지 못했다.	25.4	74.6
현재 자영업으로 돈을 벌고 있다.	6.0	94.0	취직이나 장사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4.5	95.5
현재 무직이다.	20.9	79.1	가끔 강연을 하고 있다.	22.4	77.6
현재는 무직이지만 입국 후 취직한 적이 있다.	7.5	92.5	탈북자 동지회와 같은 사회단체에서 일하고 있다.	3.0	97.0
현재는 무직이지만 한때는 장사를 했었다.	3.0	97.0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다.	1.5	98.5

한편 탈북자 가족의 가구주 혹은 그 배우자들의 월 평균 소득을 구간화하여 살펴보면 전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23.4%, 50만원 미만이 23.4%, 50만원~99만원이 34.4%를 차지하여 한 달에 100만원 미만을 벌고 있는 사람이 81.2%나 되었다. 100만원~149만원이 12.5%, 150만원~199만원이 1.6%, 200만원~249만원이 3.1%, 250~299만원이 1.6%로 조사되었다. 즉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가 약 1/3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탈북자 가족의 가족관계

### (1) 가족관계에 대한 인식

〈표 4〉에서 보여지듯이 탈북자 가족의 가족관계 인식은 총 43개 문항들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족 결속력, 가족권력, 가족원간 의사소통, 가족 내 갈등과 폭력 등 어느 변수군이든지 개별 문항들은 대부분 중위수(*median*)과 최빈값(*mode*)이 긍정성 문항일 경우 5(“매우 그렇다”) 혹은 4(“대체로 그렇다”)에 위치하거나 최소한 3(“그저 그렇다”)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정성 문항도 마찬가지로 중위수와 최빈값이 1(“전혀 그렇지 않다”)과 2(“별로 그렇지 않다”)에 위치하거나 최소한 3(“그저 그렇다”)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반적으로 조사시점 현재 탈북자 가구의 가구원이나 그 배우자에 의해서 응답된 가족관계는 긍정적이고 양호한 편으로 해석된

---

다. 다만, 각 변수군 안에서의 개별문항들은 그 긍정성 정도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바, 이 차이를 세부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원래의 5점 척도를 등간변수로 간주하여 평균(mean)을 구해보았다. 이 평균을 참고하여 각 변수군에서의 개별문항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족 결속력에 관한 총 6개 문항에 가장 높은 긍정성을 보인 문항은 '부부간의 거리감을 느낀다'로서 결국 부부간의 거리감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고 가장 낮은 긍정성을 보인 문항은 '우리가족은 잘못될 때면 서로를 탓한다'였다.

가족 권력관계의 8개 문항 중 긍정성이 높은 것들은 자녀들이 부모들은 무시하거나 반항적이지 않고 순종적인 태도들이었다. 그러나 비교적 긍정성이 낮은 문항들은 남편과 아내 사이의 동등성에 관한 문항, 혹은 자녀가 부모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부모의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에서의 권위, 부부사이의 가사 결정권의 평등성(가족의 중요한 일은 주로 남편이 결정을 한다)에 관한 것들이었고 마지막 두 개의 문항은 다른 6개의 문항과는 매우 큰 차이를 가지며 낮은 긍정성을 보이고 있다.

가족 구성원간 의사소통 변수군 내에서는 가족사이의 대화소통, 부모의 자녀마음 이해 등의 문항이 비교적 높은 긍정성을 보이는 것들이었고, 남편의 아내에 대한 경청, 자녀와의 빈번한 대화, 가족원간의 견해차 해소 노력, 배우자에 대한 의견 토로, 배우자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인지하는 것 등은 긍정적 인식에서 중간 정도를 차지하는 문항들이었다. 비교적 낮은 긍정적 인식은 자녀훈계에 대한 부부의 의견일치, '가족원의 자기 일 결정시 다른 식구들과 상의한다' 등이었다. 특히, 긍정성에서 가장 아래에 위치하는 '가족원들의 자기 일 결정시 다른 식구들과 상의한다' 문항은 중위값이 3('그저 그렇다')으로서 다른 문항들의 수준과 많은 차이를 보였다. 그러므로 탈북자 가족의 의사소통에서는 일반적인 의사소통노력이나 가족 구성원간의 이해의 노력이라는 측면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었으나 자신의 일에 대한 결정이라는 구체적인 항목에서는 결코 가족 구성원간의 의사소통노력이 높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탈북자 가족의 가족관계 마지막 변수군은 가족 내 갈등여부에 대한 인식이나 가정 폭력 정도에 대한 인식이다. 이 변수군 내의 11개 문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강한 부정이나 또는 부정을 보이고 있어 조사시점 현재 탈북자 가족 내의 갈등과 폭력이 존재하는 경향은 별로 없어 보인다. 부부싸움시 폭언과 폭력의 사용, 그리고 살림도구

〈표 4〉 가족관계 43문항에 대한 인식도(4개 변수군 구분)

변수군 명	문 항	매우 그렇다 (5)	대체로 그렇다 (4)	그저 그렇다 (3)	별로 그렇지 않다 (2)	전혀 그렇지 않다 (1)	중위수 / 최빈값	N	평균
가족 결속력	우리 부부는 거리감을 느낀다*	1.9**	11.1	1.9	22.2	63.0	1/1	48	4.65
	우리 가족은 서로를 잘 도와준다	57.8	37.5	4.7	0.0	0.0	5/5	64	4.53
	우리 가족은 친밀하다	62.1	27.3	9.1	1.5	0.0	5/5	66	4.50
	우리 가족은 함께 있을 때조차도 거의 친한 느낌이 들지 않는다*	0.0	11.5	1.9	21.2	65.4	1/1	52	4.40
	나는 배우자와 사이가 좋다	52.9	33.3	9.8	3.9	0.0	5/5	51	4.35
	우리 가족은 일이 잘못될 때면 서로를 탓한다*	1.9	7.7	13.5	34.6	42.3	2/1	52	4.08
가족 권력	우리 집 아이들은 부모들을 무시한다*	0.0	4.4	2.2	20.2	76.0	1/1	45	4.62
	우리 집 아이들이 부모에게 화를 내거나 반항적인 행동을 보인다*	0.0	6.5	6.5	39.1	47.8	2/1	46	4.28
	우리 집 아이들은 부모 말을 잘 듣는다	44.0	36.0	10.0	6.0	4.4	4/5	50	4.10
	우리 집 아이들은 부모에게 순종적이다	31.3	50.0	14.6	4.2	0.0	4/4	48	4.08
	남편은 아내를 동등하게 대해준다	25.5	49.0	23.5	2.0	0.0	4/4	51	3.98
	우리 집 아이들은 부모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31.8	40.9	15.9	9.1	2.3	4/4	44	3.91
	아이들 가정교육하기가 힘들다*	12.8	23.4	23.4	29.8	10.6	3/2	47	3.02
	우리 가족의 중요한 일은 주로 남편이 결정을 한다*	13.5	40.4	11.5	25.0	9.6	4/4	52	2.77
갈등 및 폭력	부부싸움할 때 살림살이를 부순다*	0.0	0.0	0.0	23.4	76.6	1/1	47	4.77
	부부싸움할 때 폭력을 사용한다*	0.0	0.0	6.5	21.7	71.7	1/1	46	4.66

(다음 쪽에 계속)

변수군 명	문 항	매우 그렇다 (5)	대체로 그렇다 (4)	그저 그렇다 (3)	별로 그렇지 않다 (2)	전혀 그렇지 않다 (1)	중위수 / 최빈값	N	평균
갈등 및 폭력	나는 화가 나면 우리집 아이들 을 때린다	0.0	2.1	14.9	29.8	53.2	1/1	47	4.34
	부부싸움할 때 욕을 한다*	0.0	6.3	8.3	33.3	52.1	1/1	48	4.31
	우리부부는 부부싸움을 자주 한다*	0.0	4.2	6.3	43.8	45.8	2/1	48	4.31
	우리집 아이들은 부모에게 불 만이 많은 것 같다*	4.3	0.0	13.0	37.0	45.7	2/1	46	4.20
	배우자 때문에 속이 많이 상한 다*	6.1	4.1	12.2	22.4	55.1	1/1	49	4.16
	나는 배우자에게 불만이 많다*	0.0	7.8	17.6	35.3	39.2	2/1	51	4.06
	우리 부부는 별로 대수롭지도 않은 작은 일 때문에 다투는 일이 많다*	2.0	10.2	12.2	40.8	34.7	2/2	49	3.96
	나의 배우자는 내게 불만이 많 다*	0.0	9.6	17.3	46.2	26.9	2/2	52	3.90
나는 화가 나면 우리집 아이들 에게 욕을 한다	4.2	22.9	31.3	22.9	18.8	3/3	48	3.29	
가족 원간 의사 소통	우리 가족은 서로 대화가 잘 통하는 편이다	39.3	45.9	11.5	3.3	0.0	4/4	61	4.21
	나는 우리집 아이들의 마음을 잘 이해한다	39.6	45.8	10.4	2.1	2.1	4/4	48	4.19
	남편은 아내가 말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듣는 편이다.	21.6	62.7	13.7	2.0	0.0	4/4	51	4.04
	나는 우리집 아이들과 대화를 자주 하는 편이다	24.0	56.0	16.0	4.0	0.0	4/4	50	4.00
	의견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 는 마음을 열고 서로 견해 차 이를 줄이려고 애쓴다	27.3	49.1	18.2	3.6	1.8	4/4	55	3.96
	나의 모든 심정을 배우자에게 잘 털어놓는다	28.8	46.2	15.4	9.6	0.0	4/4	52	3.94
	나의 배우자는 내가 생각하고 느기는 바를 대부분 잘 알고 있다	25.4	47.2	20.8	7.5	0.0	4/4	53	3.89
	자식을 훈계하는 방법에 대한 우리 부부의 의견은 비슷하다	20.5	50.0	15.9	11.4	2.3	4/4	44	3.75
	우리 가족은 각자의 일을 결정 할 때 다른 식구들과 상의한다	15.5	25.9	10.3	24.1	24.1	3/4	58	2.84



---

\* 부정적 가족관계의 문항으로서 그렇지 않은 항목과 반대로 코드화하였음. ‘매우 그렇다(1), 대체로 그렇다(2), 그저 그렇다(3), 별로 그렇지 않다(4), 전혀 그렇지 않다(5)’ 식으로 반대 코드화하였음. 이렇게 한 이유는 이 척도가 서열척도임에도 불구하고 각 문항의 중위수(median)와 최빈값 외에, 각 변수군 안에서 개별 문항들 사이의 가족관계 인식의 긍정성 비교를 위해서 산술평균(mean)을 보조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므로, 각 변수군 안에서 개별문항 사이의 비교를 위해서는 문항이 긍정적 성격이든 부정적 성격이든 상관없이 평균의 수치가 높으면 가족관계에 대한 높은 긍정성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하면 된다.

\*\* 단위는 퍼센트(%)임.

의 파괴, 자녀에 대한 구타 등에서는 중위수와 최빈값이 공히 ‘전혀 그렇지 않다’에 위치하고 있고 부부싸움 자체의 여부와 부부 혹은 부모-자녀 사이의 불만, 배우자로 인한 속상함 등에서도 중위수나 최빈값이 ‘별로 그렇지 않다’나 ‘전혀 그렇지 않다’에 해당하고 있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폭언의 경향(‘화가 나면 우리 집 아이들에게 욕을 한다’)은 다른 가족갈등 및 폭력변수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문항은 중위수와 최빈값이 공히 3(‘그저 그렇다’)에 위치하고 있다.

## (2) 가족관계의 4개 변수군에 대한 비교

가족관계 변수를 네 가지로 묶었을 때 각 변수군에 대한 인식의 평균값을 구해보면 높은 점수를 기준으로 (긍정적 인식을 중심으로) 나열하면 결속력이 있음, 갈등과 폭력이 없음, 가족의 권력이 평등함, 의사소통의 원활함 순으로 열거된다.

즉, 탈북자 가족의 가구주 혹은 그 배우자들은 가족원들 사이의 결속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다른 변수군들보다 가장 높았다. 네 가지 변수군의 평균점뿐만 아니라 하위 25%선의 위치도 모두 3.0(‘그저 그렇다’)의 수준을 넘기 때문에 대체로 긍정적이고 양호한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9)</sup>

---

9) 새로운 지역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탈북자들은 자신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동기가 비교적 강하다는 탈북자 지원 실무연구자의 의견을 참작한다면, 이러한 높은 가족관계의 긍정적 인식표현은 본 연구의 응답자가 응답시 보일 수 있는 사회적 바람직성(social desirability)으로 인한 하나의 체계적 오류(systemic error of response)에 의한 것임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표 5〉 네 가지 변수군의 평균값 비교

변수군	N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Percentiles	
						하위 25%	상위 25%
결속력	40	3.00	5.00	4.45	.5459	4.20	4.83
갈등 및 폭력	33	2.36	5.00	4.18	.6380	3.81	4.72
권력관계	32	2.25	5.00	3.92	.5904	3.65	4.25
의사소통	34	2.78	4.78	3.82	.5586	3.33	4.44

(3) 가족관계 인식에 대한 입국 전후의 비교

가족관계 변수군 별로 남한에 오기 전과 온 후의 인식차이를 본 결과 남한 입국 전 북한에서의 생활과 중국 등과 같은 제 3국 체류시에 대한 최고된 가족관계 인식보다 입국 후 조사시점 현재의 가족관계 인식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그러나 입국전후 비교에서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아서  $p < .05$  수준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은 갈등 및 폭력, 그리고 가족간의 의사소통에 대한 인식이고 가족의 결속력에서의 입국전후 차이는 통계적 유의도를  $p < .10$ 까지 허용<sup>10)</sup>해야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이 될 수 있을 만큼 그 차이는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이 세 가지 변수군, 즉 가족원간의 갈등 및 가족 내 폭력적 언행의 정도는 적어도 인식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볼 때 입국 전에 비해 조사시점 현재 낮다고 판정할 수 있으며, 가족원간의 의사소통의 정도도 입국 전에 비해서는 원활하다고 볼 수 있다. 통계적 유의성은 높지 않지만 가족의 결속력 또한 입국 전에 비해 조사시점 현재 더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족 내 권력평등에 대한 인식은 남한입국 전후상황을 통계적으로 비교하여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고 있지 않다.

한편, 전체 응답자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 입국 전후의 인식차이를 살펴본 결과 남성(남편 혹은 아버지)들은 4가지 변수군에서 통계적인 차이가 없는 반면, 여성(아내 혹은 어머니)들의 경우는 갈등 및 폭력 변수군( $p < .05$ )과 의사소통 변수군( $p$

10) 이 글은 앞서도 밝혔듯이 사회적 바람직성으로 추정되는 응답자들의 bias로 말미암은 높은 편향성에서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찾기 위하여 유의도 수준을  $p < .05$ 보다 좀더 자유적으로(*more liberal*) 방임하고 있다.

<.10)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탈북자 가족에서의 아내 혹은 어머니들은 가족 내에서의 갈등 및 폭력적 관계가 남한에 오기 전에 비해 온 후 완화되었으며 의사소통의 내용이 더 양호해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응답자 전체에서 발견된 입국 전후의 가족관계 인식 비교시 차이는 남성(남편 혹은 아버

〈표 6〉 네 가지 가족관계 변수군상의 입국전후 인식비교

(전체 응답자, 남, 녀 집단 paired t-test)

		평균	표준편차	t	자유도	유의도	
응답자 전체	가족권력	남한 오기 전	3.9526	.4985	1.552	41	.128
		남한 온 후	3.8748	.5305			
	의사소통	남한 오기 전	3.7891	.5202	-2.053	40	.047*
		남한 온 후	3.8225	.5125			
	결속력	남한 오기 전	4.3236	.6053	-1.874	47	.067+
		남한 온 후	4.4146	.5507			
	갈등 및 폭력	남한 오기 전	4.1282	.6175	-2.720	38	.010*
		남한 온 후	4.1895	.5876			
여성 응답자	가족 권력	남한 오기 전	3.9370	.4444	.855	18	.404
		남한 온 후	3.8734	.5085			
	의사 소통	남한 오기 전	3.8870	.4935	-1.891	17	.076+
		남한 온 후	3.9428	.4616			
	결속력	남한 오기 전	4.3586	.6125	-1.427	22	.168
		남한 온 후	4.4782	.4919			
	갈등 및 폭력	남한 오기 전	4.1666	.4571	-2.212	17	.041*
		남한 온 후	4.2334	.4127			
남성 응답자	가족권력	남한 오기 전	3.9655	.5488	1.292	22	.210
		남한 온 후	3.8760	.5595			
	의사 소통	남한 오기 전	3.7125	.5384	-.917	22	.369
		남한 온 후	3.7283	.5403			
	결속력	남한 오기 전	4.2915	.6094	-1.206	24	.240
		남한 온 후	4.3561	.6039			
	갈등 및 폭력	남한 오기 전	4.0954	.7378	-1.686	20	.107
		남한 온 후	4.1518	.7127			

\*p<.05, +p<.10

지들)의 의견이 아니라 여성(아내 혹은 어머니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입국 전후의 가족관계 변화에 대해 여성이 남성보다 더 섬세하고 예민하게 인식하는 것이 아닌가 추정하게 한다.

(4) 가족관계 인식과 남한 거주기간 사이의 관계

입국 전후의 인식비교와 아울러 가족관계에 대한 탈북자 가족원의 인식이 남한에 거주한 기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남한 사회에 거주하는 기간이 늘어나면서 응답자 가족의 가족관계가 점차 부정적인 것으로 되는 경향이 있음이 발견되었다.

남한에서의 거주 개월 수와 4개 가족 변수군 문항들의 평균값을 상관분석한 결과, 남한 거주기간과의 부정적 관계 규모가 가장 큰 것은 ‘가족권력’ 변수군이었다 ( $r=-.42, p<.01$ ). 이 변수군에 포함되는 문항내용을 참조하여 해석하면, 거주기간이 길수록 부부사이의 권력의 평등도가 오히려 약화되고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위가 떨어지며 자녀의 비순종 경향이 증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통계적 유의도가 떨어지는 하지만 가족 결속력 ( $r=-.28, p=.058$ ), 갈등 및 폭력 ( $r=-.29, p=.074$ ) 변수군에서도 남한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관관계 분석의 결과는 앞서 분석되었던 입국 전·후의 비교와는 다른 양상으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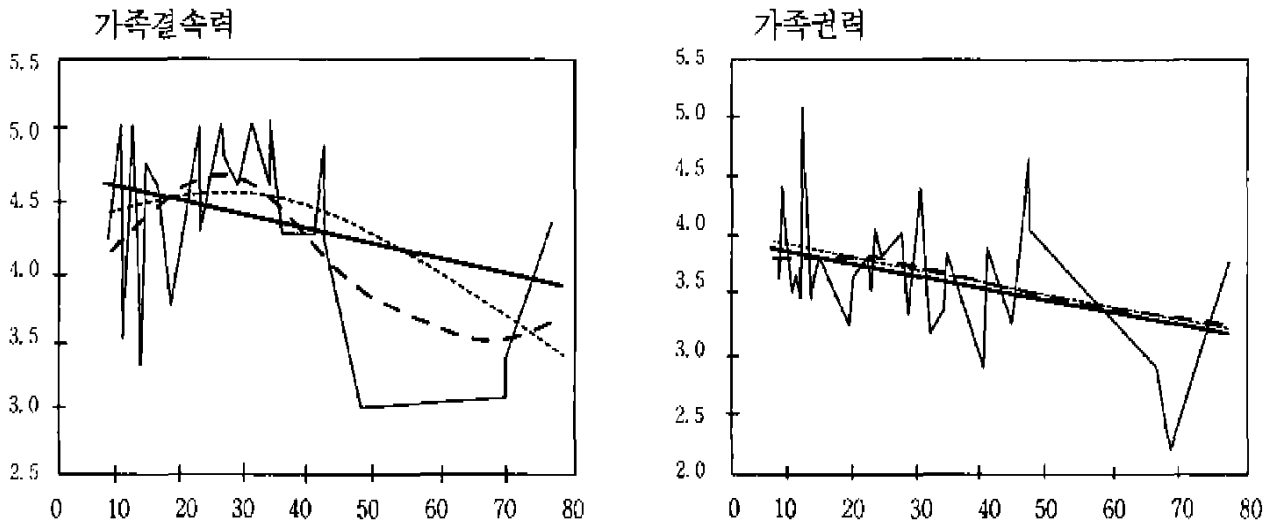
〈표 7〉 4가지 변수군과 남한 거주기간과의상관관계<sup>11)</sup>

		남한거주기간		남한거주기간	
결속력	상관계수	-.278	의사 소통	상관계수	-.202
	유의도	.058		유의도	.205
갈등 및 폭력	상관계수	-.293	권력 관계	상관계수	-.422
	유의도	.074		유의도	.006

11) 연구자들은 거주기간 외에 가족관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을 가능하기 위해 몇 가지 노력을 해보았다. 첫째, 가족관계 인식에 영향을 미치리라고 예상되는 몇 가지 변수들(연령, 개인 월평균 소득의 정도, 제3국 체류기간, 현재의 소득유무 등)과 가족관계 인식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어느 것도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둘째, 가족관계 인식을 종속변수로 놓고 다른 모든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모델자체의 유의성도 매우 낮았고 그 모델 속에서의 각 독립변수들의 종속변수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도 유의도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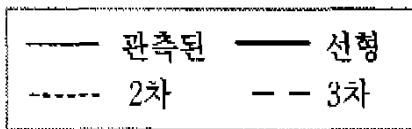
〈그림 1〉 남한거주기간(개월수)에 따른 가족결속력과 가족권력 인식의 변화

(곡선적합 검증자료)



귀하는 남한에 언제 오셨습니까?

귀하는 남한에 언제 오셨습니까?



〈표 8〉 가족관계 3 변수군의 곡선적합(curve fit) 검증결과표

독립변수 : 거주기간(개월수)									
종속변수	Mth	Rsq	d.f	F	Sigf	b0	b1	b2	b3
가족권력	LIN	.178	39	8.46	.006	4.2846	-.0131		
	QUA	.181	38	4.20	.022	4.2008	-.0072		-8. E-05
	CUB	.182	37	2.74	.057	4.1059	.0032	-.0004	2.4E-06
결속력	LIN	.077	45	3.78	.058	4.6937	-.0092		
	QUA	.194	44	5.28	.009	4.1261	.0307	-.0005	
	CUB	.259	43	5.02	.005	3.0321	.1503	-.0040	2.7E-05
갈등폭력	LIN	.086	36	3.39	.074	4.4948	-.0099		
	QUA	.097	35	1.87	.169	4.3193	.0024	-.0002	
	CUB	.110	34	1.41	.258	3.8069	.0595	-.0018	1.3E-05

---

이를 해석하면, 조사시점 현재 탈북자 가족의 관계인식은 남한에 오기 전(북한에서의 생활과 제 3국에서의 생활)과 비교하여 좋은 관계이긴 하지만 입국 후 남한거주기간이 늘어갈수록 가족관계는 점점 더 부정적인 경향으로 바뀌어간다는 것이다. 피어슨 상관분석은 분석되는 두 변수가 선형적인 관계에 있음을 기본가정으로 하는 것이기에 위의 상관분석 결과 유의도가 높게 나온 '가족권력'변수군의 평균값과 '거주기간'(개월 수) 사이의 선형관계를 '곡선적합'(curve fit)으로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족권력'은 2차 곡선(quadratic)이나 3차 곡선(cubic)의 모양보다 선형적인 분포로 설명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족 결속력 변수군은 선형보다는 2차 곡선이나 3차 곡선 모형으로 더 적합하고, 가족의 갈등 및 폭력 변수군은 선형적 모형이 더 적합하지만 통계적 유의도가 떨어진다.

위의 결과를 종합하면, 분석한 변수군 중에서 '가족권력' 변수군은 거주기간이 늘어나면서 긍정적 인식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로 변화하고 이 변화의 추이는 선형적인 것으로 판정된다. '가족결속력' 변수군은 남한 거주기간과 선형적인 관계를 이룬다고 하기보다는 3차 곡선적인 분포로 설명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sup>12)</sup> 그리고 그 3차 곡선의 최상점은 거주기간 약 30개월을 전후해서 이루어지고 최하점은 거주기간 65개월 전후로 해서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가족의 '갈등 및 폭력' 변수군은 선형적 모형이 비교적 가장 적합한 설명이지만 통계적 유의도가 떨어지므로 설명력 또한 낮다.

## 5. 결론 및 사회사업실천적 함의

본 연구에서는 탈북자 가족의 가족관계를 가족 구성원간의 결속력, 가족 내 권력 관계(부부 및 부모-자녀간),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가족 갈등 및 폭력이라는 네 가지

---

12) 곡선적합검증을 위한 분포모양을 살펴보면, 대체로 초기 30개월까지는 가족결속력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높아지다가 그 후로부터 65개월까지는 점차적으로 가족결속력 인식의 긍정성이 낮아지는 곡선을 보인다. 65개월 이후 다시 80개월 정도에 이르기까지 다시 긍정적 인식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본 조사의 응답 중 4년 이상 거주한 응답자는 전체(67명)에서 5명에 불과하므로 50개월 이후의 인식의 변화 의미는 그다지 중요하게 해석하기 힘들다. 만일 50개월 정도까지 거주한 탈북자들만 대상으로 본다면 가족결속력은 2차 곡선모형이 더 적합한 설명이 될 수도 있다.

---

영역으로 나누어 조사하였고, 탈북자 가족의 가구주 및 그 배우자들의 인식을 조사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응답된 결과에 근거하면, 조사시점 현재(2000년 8~10월) 탈북 가족은 심각한 가족갈등을 경험하고 있으리라는 예상과는 달리 대체로 양호하고 긍정적인 가족관계 인식을 보이고 있었다. 설정한 네 가지 변수군을 평균값으로 비교해보면, 가족간의 결속력 변수군이 가장 긍정적인 인식을 얻었고, 이어서 갈등 및 폭력성, 가족권력, 의사소통 변수군의 순으로 가족관계 인식에 긍정적이었다.

가족관계에 대한 네 가지 변수군에 대하여 남한에 오기 전과 온 후를 비교하여 보면, 대부분 남한에 온 후의 가족관계에 대하여 긍정적 인식이 높았다. 특히, 가족간의 의사소통, 결속력, 갈등 및 폭력 등에 대해서는 남한에 오기 전보다 온 후의 긍정적 인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p < .10$ 으로 유의도를 확대한 경우). 다만 통계적 유의도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가족권력 관계는 남한에 온 후 오히려 더 나빠짐을 보였는데 이의 주요 이유는 자녀의 부모에 대한 불순종 혹은 불복종 등의 경향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조사분석에서는 제외되었으나, 애초에 설정하였던 가족 역할수행 변수군의 신뢰도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면, 가족 내 역할수행 변수군에서 예측 가능한 결과로서 남한에 온 이후에 남편들은 가족의 경제를 책임지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더욱 깊어졌을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한국사회는 남성이 생계를 책임진다는 명분으로 가족 내 지배적 권력을 정당화해왔음을 볼 때 남편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역할감소가 가족 내 남편의 권력감소와 아내의 권력향상 그리고 자녀들의 순응도의 약화 등으로 전화될 수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겠다.

이 연구에서 밝힌 것 중 흥미로운 것으로서, 남한에 입국한 후 탈북자 가구주와 그 배우자의 가족관계 인식은 남한에 거주한 기간이 늘어날수록 결코 더 긍정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입국전후의 비교에서 가족관계 인식이 별로 차이가 없거나 입국 후 조사시점 현재의 인식이 더 긍정적인 경향과는 또 다른 현상으로서, 남한 사회에 살아가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가족관계의 향상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을 대변해준다. 특히, '가족권력' 변수군은 남한 거주 개월 수와 선형적인 부적관계로서 통계적 유의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고( $p = .006$ ), '가족결속력' 변수군은 남한 거주 개월 수와 2차 함수적 관계(입국 후 약 4~5년 정도까지: 긍정적 인식의 증가-감소) 혹은 3차 함수적 관계(입국 후 6~7년까지 포함할 경우: 긍정적 인식의 증가-감소-다시 증가)를

---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탈북자 사회적응에 대한 사회사업개입의 실천적 함의를 제공한다. 첫째, 조사시점 현재 가족관계 인식이 비교적 높은 긍정성으로 표현되었다고 하더라도 남한 거주기간에 따라 대체적으로 그 긍정적 인식이 점차 줄어든다는 심각한 고려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특히 가족 결속력과 같은 가족관계에서 정착초기의 증가하는 긍정적 인식은 약 2년 6개월을 고비로 감소추세로 돌아서는데, 이는 입국 초기 가졌던 환상에서 벗어나 가족원 모두 적응의 현실을 절실히 경험하게 되는 시기라고 본다면 어느 때보다 사회적응에 따른 가족관계의 민감성이 예상되는 시기이다.

한편 부부사이와 부모-자녀 사이의 권력관계를 포괄하는 가족권력 관계에서와 비록 통계적 유의도는 낮지만 가족 내 갈등 및 폭력에 관련된 부분에서, 입국 후 일관적으로 긍정적 인식이 감소해간다는 것은 결코 가족단위의 남한사회 적응과 정착이 쉽지 않고, 그러한 수월치 않은 정착과정이 탈북자 가족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시키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사료된다. 물론, 탈북자 가족의 개별 구성원들의 사회적응 내용이 실증적으로 분석되어 이러한 적응내용과 가족관계 변화를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분석된 후에야 이런 해석이 힘을 얻겠지만, 현재로서 이 내용은 본 연구의 범위를 넘는 것이므로 직관적으로 추정할 뿐이다.

그러나 좀더 분명한 추정은, 조사시점 현재 남한사회 편입 후 전환기적 삶을 전폭적으로 경험하는 상황에서 탈북자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뿐 아니라 탈북자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적절한 상담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고 있었다는 점은 탈북자 가족 내의 긍정적 가족관계 유지를 어렵게 만든 또 하나의 요인이 되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탈북자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관계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은 남한사회에서 적응교육을 마치고 지역사회에 편입한 직후부터 제공되거나 혹은 최소한 초기의 혼란스러움과 환상이 견히고 적응의 현실이 부부를 위시한 가족 구성원 개개인에게 하나의 위기감으로 다가오기 전에 예비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로서 개별 탈북자에 대한 경제적 자립과 관련된 상담은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에 심리·정서적인 문제에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거나 가족과 같은 집단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상담하는 프로그램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정부에서 적응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가족관계 훈련을 시행하기는 그 교육시간이 너무 짧고 동



---

원할 자원도 부족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족 관련 훈련 프로그램 및 가족상담은 사회복지관이나 가족상담 기관, 교회와 같은 종교기관 등 기존의 민간복지 자원들을 활용하여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능한 한 탈북자가 거주하는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개발하여 접근도를 높이는 한편 적어도 이들이 남한에 입국한 후 4~5년 간은 하나의 상담기관이나 복지기관이 탈북자 한가족과 결연하여 그 가족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필요시마다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간접적인 모니터링을 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정부가 이러한 민간자원의 활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지역단위(기초자치단체)의 탈북자 정착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 내의 탈북자나 탈북자 가족의 정착과정을 체계적으로 모니터하고 지원하려는 노력을 가시화하고 있다.

둘째, 가족관계에서 특히 부모-자녀 사이의 관계가 부정적으로 발견된 점은 탈북자 가족의 정착지원에서 사회사업실천 개입이 부부관계보다 부모-자녀 관계의 훈련과 안내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 연구를 위한 양적조사 이전에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탈북자 가족면담 등에서 이미 많은 경우 탈북자 부모들이 자녀양육상의 어려움을 토로하였고, 탈북자 청소년들과 부모와의 남한 사회에의 적응갈등, 문화적 갭, 부모와의 세대차, 부모에 대한 반발심 등이 빈번히 제기되었다.<sup>13)</sup> 이에 대한 부모의 적절한 대응 및 준비도 탈북자 부모에게는 기대하기 힘들다. 이러한 상황이 탈북자 가족의 관계인식을 부정적으로 몰고 갔다면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자녀와의 관계에서 입국 전에 비하여 입국 후에 아버지도 더욱 자녀문제에 신경쓰게 되었다는 조사결과를 볼 때, 아버지의 적극적 참여를 조장하는 공동 부모역할 프로그램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 이 프로그램의 진행과정 속에서 부부관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소통 기술도 교육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나아가 가족구조의 다양성은 성인 남성, 성인 여성, 노년층, 청소년, 아동 등 여러 부류의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적용 프로그램과 상담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하는 과제를 제기하며 아울러 사회사업방법론 고유의 지식과 경험을 변용하는 노력이

---

13) 북한인권시민연합 자원봉사 기록서를 참조함.

---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탈북자 가족의 문제와 특성에 맞는 가족상담 기법의 발전과 이들과 직접 부딪히고 상담하는 자원봉사, 혹은 전문 상담자들의 발굴, 교육, 관리의 체계적 구축이 필요하며, 학계와 실천현장에서 이들에 대한 자료와 정보, 그리고 실천기술을 축적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탈북자 가족의 남편들의 경제적 부양책임은 남편들을 여전히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만들고 있다고 판단된다. 장기적으로 남편들의 실직과 무직상태가 지속될 경우, 이로 인한 가족 내 갈등과 폭력은 예상 가능한 귀결이다. 물론 남편들은 입국 이후에 부부간의 싸움에서 폭력은 덜 쓰게 되었다고 인식하였지만, 이와는 달리 자녀와의 갈등관계에 대한 인식은 가족 내 갈등과 폭력의 실마리로 작용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탈북자 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원조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오래된 주제이다.

연구의 제한점들은 매우 많다. 조사대상 규모가 작은 관계로 탈북자 가족의 유형에 따른 가족관계가 제대로 파악이 안된 점(특히, 편부모 가족의 경향), 경제적 변수의 부정확성으로 가족관계에 대한 가족경제 수준 및 노동시장 지위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제대로 파악이 안된 점, 그리고 탈북자 가족원들의 사회적응 정도가 가족관계에 미치는 보다 세부적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그러한 미비점의 대표로 지적될 수 있겠다.

#### · 참고문헌 ·

- 김동배·이기영. 1999. "탈북자 정착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활동의 방향," 《사회복지》 여름호, pp. 63~89.
- 김엘리. 1999. "북한이탈 여성주민 생활실태 조사결과 보고서," 북한이탈 여성주민 생활실태 조사결과 발표와 지원방안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병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 민성길·전우택. 1995. "'사람의 통일'-정신의학적 접근," 《통일사회로 가는 길》,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개원기념 심포지엄 논문집.
- \_\_\_\_\_. 1996. "북한 귀순자들의 심리와 적응상의 문제," 탈북자들의 남한 생활 적응을 위한 대책. 탈북자 대책을 위한 대토론회. 연세대 통일연구원.

- 박미석·이종남. 1999. “탈북가족의 남한사회 적용시 겪는 어려움과 그에 따른 대처방안,”  
《통일논총》 제 17호, pp. 3~73.
- 박종철·김영윤·이우영. 1996.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민족통일연구원.
- 유영주·김순옥·김경신. 2001. 《가족관계학》, 교문사.
- 윤덕룡·강태규. 1997. “탈북자의 실업과 빈부격차에 의한 갈등 - 탈북자들의 경제문제에 관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연세대 통일연구소 통일심포지엄 발표문.
- 윤여상. 1999. “탈북자 적응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미간행 연구논문.
- 이기영. 1998. “탈북자 지원 민간단체와 정부와의 파트너십 (Partnership) 연구,” '98년도 북한 통일문제신진연구자 연구지원 최종보고서.
- \_\_\_\_\_. 2000. “탈북자 가족의 남한사회적응과정,”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추계 학술 대회 발표문.
- 이장호. 1997. “북한출신주민(탈북자 포함) 심리사회적응 프로그램의 개발,” 《성곡논총》 제 28집, 제 4권, pp. 739~789.
- 이정우·김형수. 1996. 《탈북이주자 사회정착지원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종훈. 1996. “남한이주 북한동포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정비방향,” 《현안분석》 제 119호, 국회: 입법조사연구자료.
- 장혜경·김영란. 2001. 《이탈주민 가족의 가족안정성 및 사회적응과 여성의 역할》, 한국여성개발원.
- 전우택. 1995. “통일 후 예상되는 북한주민들의 통일사회 적용에 대한 연구 - 난민, 한국인 이민자, 북한귀순자를 중심으로,” 통일원 '95년도 연구용역과제.
- Almqvist, K., Brandell-Forsberg, M. 1995. “Iranian Refugee Children in Sweden: Effects of Organized Violence and Forced Migration on Preschool Children,” *American J. Orthopsychiatry*, 65 (2).
- Bauer, Michael, Priebe, Stefan. 1994. “Psychopathology and Long-term Adjustment after Crises in Refugees from East Germany,”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Psychiatry*.
- Bernier, D. 1992. “The Indochinese Refugees A Perspective from Various Stress Theories,” *Journal of Multicultural Social Work*, pp. 15~31.
- Goldberg, E. R. 1980. “Relocation and the Family: A Crisis in Adolescent Development,” In G. V. Coehlo and P. I. Ahmed (Eds.), *Uprooting and Development: Dilemmas of Coping with Modernization*, pp. 211~231.
- Hirayama, K K., Hirayama, H. and Cetingok M. 1993. “Mental Health Promotion for

- 
- Southeast Asian Refugees in the USA," *International Social Work*, 36, pp.119~129.
- Jacob, A.G. 1994. "Social Integration of Salvadoran Refugees," *Social Work*, 39(3), pp. 307~312.
- Kelly, P. 1992. "The Application of Family Systems Theory to Mental Health Services for Southeast Asian Refugees," *Social Work with Immigrants and Refugees*, The Haworth Press Inc.
- Kelly, P. 1994. "Integrating Systemic and Postsystemic Approaches to Social Work Practice with Refugee Families," *Families in Society*, 75(9), pp.541~549.
- Lee, E. 1988. "Cultural Factors in Working with Southeast Asian Refugee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ce*, 11, pp.167~179.
- Lovell, M. L., Nguyen, T. T. 1987, "Refugee Women: Lives in Transition." *International Social Work*, 30, pp.317~325.
- Nguyen, S. D. 1982. "The Psycho-social Adjustment and the Mental Health Needs of Southeast Asian Refugees," *Psychiatric Journal of the University of Ottawa*, 7(1), pp. 26~35.
- Strober, 1994. Susan B. "Social Work Interventions to Alleviate Cambodian Refugee Psychological Distress," *International Social Work*, 37, pp.23~35.
- Tran, T.V. and Nguyen, T. D. 1994. "Gender and Satisfaction with the Host Society Among Indochinese Refugee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8(2).

---

# Family Relationship among North Korean Migrant Families in Early Adaptation

An Empirical Study Centered on Family Members' Perception

Lee, Ki-Young

(Dept. of Social Welfare, Pusan National University)

Sung, Hyang-Sook

(Lecturer of Kyungsung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family relationship among North Korean migrant families in early adaptation (approximately, up to 5~6 years after arrival in the South). Family cohesion, communication, power relationship, and conflicts and domestic violence among family members were examined by the perceptions of 67 male and female householders and their spouses. In the four areas of family relationship, the subjects have quite positive perceptions and shows no cri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on the perceptions between before and after arrival. However, positive perception on family relationship gradually decreases as the length of time of in the South increases with linear or nonlinear patterns according to subcategories of family relationship. These findings suggest several social work practice implications in resettlement assistance for the North Korean migrant families.